

회원 문화탐방, 6/18(목) 강화 교동면에서



사우회 2015년 전반기 '회원 문화탐방'이 6월18일(목) 강화 교동면에서 실시됐다. 교동면은 국내에서 열네 번째로 큰 섬이지만 휴전선이 섬을 휘돌아가는 탓에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서 가깝지만 먼 곳이었다. 그런 교동면이 지난해 6월 강화-교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3.4Km의 연육교가 건설돼 왕래가 수월해지면서 마침내 사우회 일행을 맞았다. 아침 8:00 사우회를 출발한 45인승 대형버스가 50여분 만에 교동면 연육교 앞에 도착하자 해병대원 1명이 차에 올라 검문을 하고 내려갔다. 검문을 받아본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었으나 새삼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버스는 잠시 후 월선포에 도착했고 '강화나들길 9코스' 탐방이 시작됐다. 먼저 읍내리 '교동향교'에 들렀다. 고려 유학자 안윤의 제자들이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최초로 孔子像을 들여와 봉안한 곳이다. 이어 화개사를 지나 화개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갈길도 만났고 경사가 심한 바윗길에서는 밧줄을 잡고 올라가기도 했다. (사진)



"이게 무슨 문화탐방이냐? 등산 회원들 산행이지"(조한권)
"백두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봤지만 오늘보다 힘들지 않았어"(김조곤)

라는 불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 시간 20여 분만에 해발 269m 화개산 정상에 올라 대운정(戴雲亭)(사진)에서 휴식을 취했다. '구름을 이고 있는 정자'라는 뜻이지만 이날 대운정에 구름은 없었고 따가운 햇볕만 쨍쨍했다. 다행히 발아래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땀으로 범벅이 됐던 몸은 금세 개운해졌고 화개산 정상으로 오르면서 힘들다 투덜땀던 기억들도 봄눈 녹듯 사라졌다. 날씨가 좋은 날은 대운정에서 개성 송악산이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옅은 해무(海霧)때문에 송악산은 보지 못했지만, 석모도와 미법도, 서검도 등 주변 섬들이 그림처럼 바다에 떠있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했다. 하산 길에는 연산군이 유배되어 살았다는 곳도 지났고, 옛 읍성터 남문이었던 '유량루'가 1921년 폭풍으로 지붕은 무너진 채 반원 형태로 남아 있는 '홍예문'도 지나갔다. 그리고 대룡시장,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70년대 한국을 보는 듯한 풍경이 그 시장 안에 펼쳐져 있었다. 좁은 골목 안에 다방-이발소-미장원-철물점-고무신가게 식당 등이 옛날 간판을 걸고 먼지가 쌓인 채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을까? 사람은 살고 있을까?' 생각하며 걷고 있는데, '영업 중' 이라든가 '식사할 수 있음'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 알고 보니 대룡시장은 토-일요일에만 정상 영업을 한다고 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 서서히 지쳐가면서 어딘가에 머물러 쉬고 싶을 때 쯤 버스는 일행을 비닐하우스로 보이는 허름한 곳(대흥호 별해별식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점심 식사로 간장게장이 나왔고 송어회가 나왔다. 간장게장은 맨입에 먹어도 전혀 짜지가 않았고 이어 송어회를 두 입 정도 먹었을 까. 일인당 두 마리씩 여덟 마리가 들어있는 '꽃게찜' 냄비가 식탁에 놓여졌다.

한눈에 봐도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리를 대충 뜯고 몸통을 갈라 입에 무는 순간, 여기저기서 '아!~' 하는 탄성이 동시에 터져 나와 식당을 가득 채웠다. 입안 가득 퍼지는 꽃게 살의 부드럽고 감칠 맛을 이구동성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식당 주인이 바다에 나가 직접 잡아서 요리했다는 꽃게찜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안겨 주었다. 몇몇 회원은 부인에게 갖다 준다며 포장주문도 했다. 계속해서 병어회와 깨나리회, 깨나리찜이 식탁에 올라왔다. 손님을 정성으로 배려하는 식당 주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음식 맛에 더해 일행을 감동시켰다. 이번 문화탐방에는 '청죽회'와 '문미회' '문비회' '문우회' 등에서 33명이 참석해 '강화나들길 9코스'를 8Km 정도 걸었다.



봄철 바둑대회, 김정수-이한익 회원 우승



〈회장배 봄철 바둑대회〉

사우회 회장배 봄철 바둑대회에서 김정수(보도) 회원과 이한익(기술) 회원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김정수 회원은 A조(아마5단~5급) 결승전에서 관리부문의 박준하(관리) 회원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난 2008년 봄철 바둑대회 결승전에서 임준석(기술) 회원에게 져 준우승에 머무른 뒤 와신상담 7년 만에 대망의 첫 우승을 거머쥔 것이다. B조(6급~9급) 결승에서는 이한익 회원이 같은 기술부문의 노서를 고문을 이겨 역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바둑대회에는 메르스 공포에도 불구하고 A조에 18명, B조에 15명 등 33명이 출전했으며 참관자도 11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A조 우승 김정수〉



〈B조 우승 이한익〉

사우회 전반기 행사 마무리

사우회 2015년 상반기 행사가 '회원 문화탐방'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뜻하지 않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로 6월 한 달, 온 나라가 공포에 떨기도 했으나 사무처는 6월 행사였던 '바둑대회'와 '문화탐방'을 무사히 끝내고 행사를 마감했다. 또한 사우회 회원들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을 잘 지켰다. 사우회 회원 중 두 번 째 고령인 노서울(기술) 고문은 '메르스' 와중에도 매일 사우회에 출근(?)해 고스톱을 즐겼다. 노고문은,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비결도 있었지만, 방역당국의 권고대로 손을 자주 잘 씻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한 것이 건강을 지킨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우회 우편함

손주들을 키자니아로 데리고 오세요

진 현 숙(편제)



안녕하세요.

MBC의 자회사인 '키자니아' 대표이사 진현숙입니다. 사우회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키자니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키자니아'는 잠실롯데월드 안에 있으며 일본 도쿄, 포르투갈 리스본, 영국 런던 등 세계 16개국 19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입니다. 한국에는 2010년 2월 27일 첫 선을 보였으며 <키자니아 서울>은 현재까지 3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방문하여 각종 직업을 체험



<키자니아 문화재 발굴 모습>

했습니다. 만 3세부터 16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실제 도시의 모습을 2/3 사이즈로 축소한 <키자니아 서울> 안에서 ▲승무원, 파일럿▲의사▲경찰관▲앵커▲배우▲외교관▲요리사▲디자이너▲패션모델 등 9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시즌마다 새로운 체험활동을 선보이기도 하고 신규 체험시설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24시를 재현한 <응급 의학 센터>와 '고고학자'가 되어 유물 발굴 및 보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문화재 발굴 현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일한 대가로 급여(키조, KidZo)도 받는데요, 자신이 번 돈으로 키자니아 롯데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키자니아 산업은행에 저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키자니아를 경험한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평소에 접하지 못한 활동을 통해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키자니아 서울>은 삼성전자, 대한항공, 이마트, 롯데백화점, 국세청, 국방부 등 50여 개의 대한민국 대표 기업 및 관공서와 파트너십



<키자니아 전경>

을 맺고 파트너사와의 협업으로 어린이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현실감 넘치는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선배님들의 귀여운 손자,손녀들이 시원한 실내에서 <키자니아 서울>을 꼭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전에 사우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최대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www.kidzania.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6.25 참전 언론인 명패 헌액

국방부는 6월 22일, 6.25 참전 언론인 35명과 종군기자 43명 등 78명의 이름을 새긴 명패를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 헌액했다.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에 기여한 언론인을 예우하며 감사함을 전하자는 취지에서다. MBC사우회 회원 가운데 최창봉 前 MBC사장과 박기병(관리) 前 강릉-춘천MBC사장, 공대식(보도) 前 해설위원 등 3명도 참전 언론인으로



헌액됐다. 최창봉(사진) 前 MBC사장은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던 1951년 1월, 단기 간부후보생 양성소인 육군종합학교 22기생으로 입교해 장교로 복무했다. 가평전투에 참전한 것을 시작으로 사창리-용문산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다. 박기병(사진) 회원은 1950년 12월, 학도병으로 입대해 7사단 포병 제16대대 소속으로 북한군과 싸웠다. 특히 2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된 양구 백석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1954년 10월, 일등중사로 제대했다. 공대식(사진) 회원은 서울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51년 10월, 피난지 대구에서 19살에 해군에 자원입대한 뒤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패주하는 북한군을 쫓아 함경북도 청진 양도까지 북진했다가 1.4후퇴 때 남하했으며 1957년 7월에 제대했다.



故최세훈 가족 출판기념회에서

박민정(ANN·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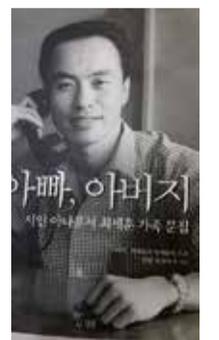


6월 21일(일) 오후 충정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최초의 시인, 야나운서인 최세훈씨 가족의 조촐한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딸 철미씨와 내과 의사인 장남 창원씨 그리고 막내 승원씨가 31년 전 50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와 글, 거기에 자신들의 글을 모아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의 가족 문집을 만들었다. 미국 이민 30년 동안 아버지의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문집을 내고 6월 셋째 주 일요일 '아버지 날'에 맞춰 출판 기념회를 가진 자리에는 고인의 선배 ANN 전영우, 박종세씨와 후배 ANN 차인태, 정연호, 정영환, 노영인, 김체

영, 정영희씨 그리고 MBC 동료였던 서규석, 최원두씨 외에도 야나운서 시험을 같이 봤다가 낙방했다는 한승헌 변호사 내외 등 6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차인태 ANN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최세훈씨를 엄



격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완벽주의자였지만 유머도 많고 글도 잘 쓰는 동료로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최세훈씨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전영우 전 ANN가 낭독한 따님의 시 「아빠, 아버지」를 듣다보니 한 번도 읽지 못한 최세훈 야나운서 선배는 오늘 이후 더 이상 MBC 야나운서실 액자 속의 미소 띤 모습이 아니었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 속세의 힘겨움을 털어내고 효심 가득한 딸과 아들들을 두신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 머리에 자리잡게 되었다. 새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조사

■ 팔순 ■

김창식(보도)8/28 임병찬(전주)9/28

■ 고희 ■

이하결(관리)8/16 이경재(관리)8/24 정보균(관리)9/03 이재원(전주)9/21
이호성(관리)9/22 김순배(기술)9/23

■ 회갑 ■

김형욱(기술)8/10 고연도(편제)8/15 조승필(관리)8/15 한재수(관리)8/16
신복남(업무)8/19 성경환(ANN)9/05 강효복(관리)9/15 양재철(보도)9/15
김형태(편제)9/21

■ 결혼 ■

홍순흥(편제)차녀6/13 이중형(관리)딸 7/12 신낙균(편제)장녀7/26

■ 부음 ■

강현식(편제)장인상5/28 이종수(관리)장모상6/06 이중형(관리)모친상6/17
엄기원(관리)부친상6/23 이경환(기술)부친상6/24 이영자(관리)시모상6/28

吳光澤(보도) 010-5354-9551 031-916-9557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87, 1009-1303 (일산동,후곡마을)
洪性秋(기술) 010-5346-8917
구로구 경인로65길 16-15, 1105-2401 (신도림4차e편한세상)

■ 평생희비 ■

오광택(보도)5/27 황우성(관리)5/29 남상호(기술)6/05
홍성추(기술)6/12 김철진(편제)7/07

■ 연희비 ■

5월 : 고무송(11~12) 권순복(09~15,80세완납) 김병문(15) 김정명(15)
박성배(15) 박우정(12~16) 서상웅(15) 성하권(12~14) 윤상준(16)
이대교(15) 이오기(15) 이종구(14~15) 정경태(15) 정계춘(19~21)
홍학표(15) 황우성(14)

6월 : 국창섭(16~25,80세완납) 김관영(15) 김선희(15) 김은식(09~18,80세완납)
김정수(보도,15) 김채영(15) 남궁미(15) 노영인(15) 박민정(15) 박종순(15)
박찬순(15) 반주원(15) 서은선(15) 송영수(16~17) 안종순(15) 안주희(15)
윤종욱(16~20) 이명순(15) 이상세(15) 이승재(15) 이인숙(15) 임국희(15)
전정익(15) 정영희(15) 주규만(15) 최운형(15) 최화숙(15) 황경자(15)

* 7-8월에 연희비를 납부한 회원명단은 9월호에 실겠습니다. 연희비(평생희비)는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 주십시오.

전화 / 주소 변경

감사 : 정기정 010-8765-3561
편제 : 강철호 010-3213-0662
심상수 인천시 중구 신도시남로 15, 101-401 (운서동,금호베스트빌)
은희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94번길 27, 107-1601 (삼성래미안)
이학규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60, 102-307 (신정동,목동현대A)
보도 : 김상기(8기) 강남구 언주로 107, 212-204 (개포동,현대2차A)
ANN : 이규리 010-5284-0969 이성화 010-6205-2323
최해숙 010-5289-3068
서초구 현릉로8길 10-12, 107-603 (신원동,현대엠코타운)
기술 : 고규균 010-5405-0715 김경로 010-5482-9212
남궁옥인 010-3747-5270
오학균 흥천군 남면 고드래미길 15-5 (남면,남노일리)
이재영 010-9655-2362 조복현 010-9199-5828
업무 : 한영희 010-3758-8827
관리 : 박기병 010-3787-0520
안현덕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통로골길57번길 56
오범성 010-4213-2580 육수길 010-3275-5709
이화섭 010-9091-4626
조은국 인천시 서구 완정로65번안길 10, 114-203 (대주피오레A)
조일동 세종시 달빛로 211, 1016-2602 (범지기마을10단지)
홍성묵 010-3172-9685
전주 : 박승기 010-3651-0151 임백순 010-3245-8908

(회보 제29호 주소/전화번호 변경 란에 경진군(관리) 회원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경기도 양평군으로 이사 간 것처럼 잘못 기재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 명복을 빕니다 ■

조한준(전주): 9년동안 치료해오던 간경화가 악화돼 6월3일(수) 별세했다. 향년 64세. 1975년 전주MBC 총무부에 입사해 22년간 근무하고 1997년에 명예 퇴직했다.

신현필(보도): 6월7일(일) 미국 뉴저지에서 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1968년 스포츠국에 입사해서 MBC 스포츠 중계방송의 위상 정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스포츠국장, 홍보국장, 방송자료국장, 뉴미디어국장을 역임했다.

이규용(관리): 6월13일(토) 급성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한국생산성본부, 삼립식품, 코오롱상사, 한양그룹 홍보실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에 MBC에 입사한 홍보전문가로 MBC에서도 홍보분야에서만 근무했다. <34-24-34 좋아하네> 등 3권의 광고 칼럼집을 펴낸바 있다. 모범 장서가이기도 했던 고인은 2010년 3월, 40년간 모아왔던 4천여권의 책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동생이다.

최삼수(기술): 6월15일(월)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부산MBC에서 근무하다가 1961년 MBC 개국요원으로 입사해 라디오기술국장, 대전지사장 등을 역임하고 1977년에 친정인 부산MBC로 돌아갔다.

홍의연(편제): 6월25일(목)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2년 전부터 심장병으로 고생해 왔으며 20일 전에 병세가 악화돼 입원했었다. TV 개국을 앞둔 1969년에 TV편성부장으로 MBC에 입사해 제작국장, 제작이사를 역임한 뒤 강릉문화방송 사장을 지냈다.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金鐵鎭(편제) 010-8887-8695 031-990-8556
김포시 신곡리3번길 34-38, 204-1501 (동부센트레빌A)
南相豪(기술) 010-4587-0966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16, 906-903 (중산동,중산마을)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MBC C&I

회 원 동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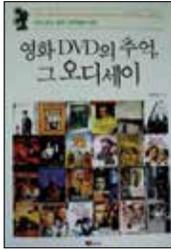
김영수(보도) 前MBC사장. 5월28일(목)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대한민국 기자-격동의 현장을 되돌아보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에는, 이승만에서 박정희에 이르기까지 전직 대통령을 취재하며 겪은 에피소드와 한-일 회담, 3.15부정선거,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역사적인 사건을 보도한 생생한 취재기와 현대사의 이면이 담겨있다.



박영선(보도) <누가 지도자인가. 박영선의 시선 14인의 대통령 꿈과 그 현실>을 펴냈다. 20여년 기자생활과 10여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만났던 14명의 국내, 외 지도자 모습이 담겨있다.



최양목(편제) 6월말 '영화DVD의 추억, 그 오디오세이'(W미디어)를 출간했다. 1,700개 이상의 영화DVD를 보유하고 있는 영화 애호가인 필자가 선정한 '다시 보고 싶은 고전영화 51편'에 대한 리뷰, 스토리, 감독, 주연배우, 배우들의 스캔들 등에 관한 상세하고 다양한 소개를 담았다.



김철호(보도) 주)미디어토스대표. 방송기자클럽 회보 '방송기자저널'에 연재해오던 '명인명창들의 예술과 사랑'을 끝냈다. '명인명창 예술과 사랑'은 2012년 9월 <쑥대머리 임방울>로 시작해 올 6월 <21세기 한류 본색은 무엇일

까?) 까지 33회를 연재했다.



황선길(편제) 타이포도그래피 詩集을 간행했다. 타이포도그래피란 미적 가치를 위하여 글자(타입)를 이용한 모든 디자인을 말하는데 황 회원의 詩集은 가장 사실적 매체인 사진과 의미와 감정을 함께 전함으로써 文字만의 표현을 대체하고 있다.



윤정식(보도) 7월 3일 OBS경인TV(주)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되어 15일 취임했다. 윤정식 회장은 청주.충주MBC 대표이사과 KT 부사장을 지낸 바 있다.



합창으로 유엔을 다녀왔고 이젠 평양을 내다봅니다

조석영(관리)



76세에 접어든 자신을 문득 돌이켜보니 별로 뛰어난 재주는 없지만 부모님이 물려준 좋은 목소리 덕분에 일생 두 차례나 전성기를 맞는 행운의 주인공이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나운서로, 인생 2모작에는 최고 명문합창단의 퍼스트 테너로.

아둔해서였을까? 아니면 열등감 때문이었을까? 저는 타고 난 자신의 목소리에 주목하거나 자부심을 갖지 못했고, 취직을 앞두고 방향하다가 이웃집 아주머니의 '네 목소리가 꼭 아나운서 같구나'하는 칭찬 한마디에 힘을 얻어 아나운서가 됨으로써 첫 번째 전성기를 맞게 됐고, 57세 된 아내가 전업주부를 벗고 연극에 몰입하더니 68세에 뮤지컬<러브>의 피터부인 役으로 캐스팅되는가 하면, 71세에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할머니 役으로 캐스팅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서야 뒤늦게 자극 받아 맹렬학습에 돌입, 어렵사리 득음(?)을 한 뒤 2011년 KBS '남자의 자격' 오디션을 통해 합창단에 입단해 아이돌 반열에 오르며 화려한 두 번째 전성기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청춘합창단' 오디션 합격에는 저 나름의 숨은 작전이 있었는데요, 동갑내기 아내 박찬열은 성악 전공에 대기만성의 당당한 현역 뮤지컬배우로서 과거 모든 오디션에 합격하는 신비한 기운을 타고 났기에 부부가 함께 도전하면 아내 덕분에 저도 덩달아 합격되려니 기대하며 도전했고, 이 극비처방이 성공을 거둬 저희 부부는 동반 합격의 행운을 차지

했던 것입니다. '청춘합창단'에는 남다른 열정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매주 화요일 연습 때마다 부산, 김해, 완주, 춘천, 인천에서 모이는 열성 단원들로 인해 열기가 뜨겁고, 배우려는 열정과 기량 또한 젊은이들 못지않게 치열하다 보니 출석률도 높았고 합창실력도 날이 갈수록 탄탄해졌습니다. 합창에 대한 열정을 타고 난 사람들의 집단에다 윤학원, 장병욱, 김상경 같은 훌륭한 지휘자로부터 배우며 연마하다 보니 합창 실력도 늘고 유명해져서 기업체나 기관의 초청공연도 많아졌고 대통령 취임식, 현충일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도 초청받는



명문합창단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25년 동안 성당 성가대에서 무명 베이스로 합창해 오던 제가 '청춘합창단'의 내로라하는 소리꾼들이 모인 집단에서 존재감과 자신감을 갖고 퍼스트 테너로 노래하면서 저의 팬들도 생기고 제 이름이 걸린 솔로동영

상이 같은 곡을 노래한 한 국 성악가 중 최다 조회를 기록하는 등 이 변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년 6/12~6/20에는 UN본부 초청으로 UN주재 각국 대사 부부와 요인들 앞에서 우리 민족의 절실한 통일 염원을 담아 노래하고 뉴욕과 워싱턴에서는 동포들의 환대 속에 위문공연도 해냈습니다(사진). 꿈처럼 여겨지던 목표를 기어코 이뤄낸 것입니다. 곁에 한복을 갖춰 입고 아리랑을 부르며 기립박수를 받은 유엔공연은 합창단원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자부심이 되었지요.

평균연령 65세의 은퇴생활자들로 구성된 민간합창단으로 홀로서기를 한 입장이어서 맨주먹이었기에 정부기관과 기업체와 독지가와 知人, 일반 시민들로부터 후원과 도움을 받아 유엔과 뉴욕 워싱턴을 다녀오는 적지 않은 비용을 충당했고, 국민의 통일 염원을 담아 이제 다음 연주투어는 평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합창단'의 발걸음이 통일 대업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해서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보람을 오래도록 간직하려 합니다.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원수첩 제작용 사진을 보내 주세요.

올해는 사우회가 창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우회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事典급 회원수첩을 발행하기로 하고 지금 회원들의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신 회원들이 1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진이 빠진 채 수첩을 만들면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완성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직 사진을 보내지 못한 회원들은 이 기사를 보시는 즉시 반명함판 사진 한 장을 사우회 사무처(010-5247-009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望郷 斷想

차인태(ANN)



"야! 네레 뭐이가?"
 2014년 1월 초.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3층 민주평통 사무실에 80지난 평안북도 출신 어른 한 분이 신년인사 차 사무실에 들렀다가 내가 자리에 없자 소파에 앉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일

자로 새로 온 여직원(탈북민으로 2008년 입국 정착한 사무직)이 "저, 누구신데요?" 하고 묻자 "야! 네레 뭐이가? 날 모르간네?" "....."

그 직원은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동남아를 거쳐 대한민국 땅에 정착한 이북 출신이지만, 같은 이북출신이라도 평안도와 함경도의 말씨가 다르다보니 "네레 뭐이가? 날 모르간네?" (네가 도대체 누군데 날 모른다 말이나?)를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생긴 해프닝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 지역회의는 함북을 비롯해 함남, 평북, 평남, 황해도 출신 실향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역양이나 말씨, 사투리 어휘나 표현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의 토속 방언이나 그 지방 말투를 잘 모르듯이 「데사꾸」(천으로 만든 가방), 「학깁다」(가볍다 - 가벼운 물건을 지칭할 때 쓰는 말), 「일없다」(관찮다)처럼 함경북도 지방의 말을 남쪽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올 해로 분단 70년, 망향 70년!

지나 온 세월만큼이나 그리움은 커지고 세월의 어깨만큼 恨은 쌓여만 가는데 이제나 저제나 고향방문은 커녕 보고픈 혈육의 얼굴도 점점 흐려지니 이 마음을 누가 알 것이며 쌓이는 그리움을 그 무엇으로 대신 할 수 있으리오!

음력설이나 추석이 되면 남들은 고향 간다고 자식 손잡고 선물 꾸러미 들고 부산까지 8시간, 해남까지 7시간하고 달려가는데 뒷마루에 앉아 그저 북쪽하늘만을 바라보는 우리 실향민, 그래도 해 넘기기 전에 이번엔 좋은 소식이 있겠거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게다가 고향방문 신청을

한 어른들의 숫자마저 날이 갈수록 줄어드니 그 자손들의 안타까운 마음이야 일러 무삼하리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이런 법이 또 어디 있던 말입니까? 흔히 일천만 이산가족이라 합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 1.4 후퇴 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못한 피난민을 비롯해 반공포로로 석방된 분들의 후손들 등등. 말 못할 사연을 안고 가족, 부모, 형제들과 헤어져 한 평생을 하루같이 손꼽으며 기다려 왔건만 점점 사위어가는 남과 북의 혈육들을 생각하면 애간장이 녹는다고 할까, 단장의 아픔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실상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실향민들은 마치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인 양 그저 눈물만이 앞을 가립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얼싸안고 덩구는 그 날은 진정 아직 요원한 일일까요?

평안도 말, 함경도 말이 조금 달라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야! 네레 뭐이가!" (네가 누군데?)



인생 제2막도 살 만하다

남궁 옥인(기술)



퇴직 후 백수 생활도 잠시 잠깐 해봤고 세월아 네월아 심심하던 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 잡았습니다. 300여개 나라 3.5억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업한 개인무역(수출)업이라 자부합니다. 영

똥하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하자니 생동감·호기심도 생기고 소일거리도 되고, 적당히 긴장감도 들고, 용돈벌이도 되고, 식구들끼리 이야깃거리도 되어주니 일석오조(一石五鳥)입니다. 현재 6개월의 실적이 4만7천달러 매출에 수입 만2천달러의 성적입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판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노심초사하여 얻은, 액수보다 중요한 결과입니다.

살아오면서 주위에서 구하고, 모으고, 물려받아 애지중지하던 잡다한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누굴 주자니 상대 물색이 쉽지 않고.. 그러다보니 집안이 점점 좁아져서 전자상거래 중고나라를 기웃거리다 이베이(ebay-미국의 다국적 인터넷 C2C 기업)를 알게 되어 타 판매자들이 부러워하는 Power Seller, Top Seller Silver 등급으로 활동 중인데, 월 10개 500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 150개 66,500달러 까지 판매 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믿을만한 판매자로 인정받는 몸입니다. 오픈마켓은 그 특성상 내가 등록한 상품이 상위에 노출될수록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경매 시작가격이 0.99달러 등 저렴할수록, 또 배송비가 무료이거나 쌀수록 노출이 유리하게 되어있어, 때로 손해

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포장이 중요한데 최하 4중 포장, 즉 쿠션이 있는 포장재로 1차, 비닐 지퍼백으로 2차, 뽁뽁이로 3차 포장 후 BOX에 넣고 TAPE으로 도배하듯 마무리 한 후 주소지 라벨을 투명 TAPE으로 덮습니다. 포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진이죠. 팔리고 안 팔리고를 좌우할 정도로 설명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촬영. 마음에 안 들면 조명과 배경색들을 바꿔가며 2차·3차 재시도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1~2일내에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밤 10:30~11:30 경에 경매마감을 하면 휴일이 겹쳐 포장과 배송하는 시간에 여유가 생겨 유리합니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미국 현지 저녁시간의 경매종료시에 제일 많은 경쟁자가 있다는데, 제가 겪은 그간의 경험으로는 토·금>목>일·수>화 順입니다.

6월15일 현재, 그간 등록했던 213건중 1차에서 안 팔린 것이 31건, 0.99달러에 끝난 것이 14건, 10달러 미만에 팔린 것도 23건이나 되지만 아무튼 17개국에 101 상자가 선적, 수출되었습니다. 아시아 6개국 37상자, 유럽 6개국 30상자, 북미 3개국 27상자, 오세아니아 2개국 7상자 등입니다. 이베이는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 현재 우리나라 셀러는 약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사진촬영, 포토샵, 기본적인 영어실력 등이 필요하고, 안정권으로 접어들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요구된다 합니다. 성공사례를 보면 연 180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티타늄 급이 우리나라에 여러 명 있어 국내 셀러들의 수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매우 긍정적입

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것도, 저절로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베이 코리아에서 비즈니스 설명회. 초보셀러 필수가이드 1·2·3을 배우고, 이베이와 페이팔(PayPal)에 가입하고 나서야 창업에 이르렀습니다. 이베이와 페이팔은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곳인지라 눈뜨면 하루에 한 번씩 열어보는 메일에서 두근 반 세근 반하는 "영어 울렁증"이 시작되는데, 문의사항은 즉답으로, 많으면 하루 3건을 답변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조금씩 둔해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구글, 네이버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모든 문제를 우격다짐으로 꾸려가고, 정 어려운 것은 영어라면 자신 있다는 며늘아이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시간과 규모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1일 4건씩 주 3일을 등록해보니, 아직은 식구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을 느껴, 요즘은 주 1일 6건 정도로만 매출합니다.

스마트폰이 모든 연락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메일의 번역까지도 담당하는 등 아주 똑똑한 비서 역할을 해 주지만,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 1개월 과정 주 3회 20시간 강좌를 수강 중이며 다음에는 컴퓨터 기초과정도 수강할 예정입니다. 모든 게 아직은 서툴다 보니, 고미술품은 아 들내미가, 사진편집 등은 딸내미가, 인보이스·피드백 등은 아내의 도움을 받습니다. 손주들 빼고 전 가족이 동원되는 셈이죠. 겨우 6개월 밖에 해보지 않은 주제에 너무 큰 소리 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지만, 일 끝내고 저녁상에 왕대포 한 잔하면서 목청껏 "삼식이도 살 만 하다"고 외쳐봅니다.

스마트영상 작가 무료 교육 안내

(사)50플러스코리아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퇴직 방송인을 대상으로 IT기술 습득과 이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마트영상 작가 양성 교육을 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영상자서전, 가족사, 인물향토사 등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신직업 만들기'입니다. 교육은 8월18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 목요일 6시간씩 총 120시간 진행됩니다. 수료생들에게는 독립제작사 취업, 협동조합 결성, 개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사우회 사무실(02-722-7416) 또는 (사)50플러스코리아(02-6335-53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시리즈

『元老를 만나다』

사우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元老를 만나다>를 기획합니다.

편의상 분야별로 나누어 MBC와의 인연, 기억하고 있는 'MBC의 歷史'의 한 토막 등을 듣습니다.

네 번째 만난 분은 안흥식(기술) 선배님입니다.

MBC 방송 기술부문의 礎石을 다지는데 기여하신 회고담을 들어봅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안녕하세요, 멀리 캐나다에서 안흥식 인사드립니다.

MBC 동료, 선배님들의 염려 덕분에 80세라는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작고하신 여러 선배님들을 대신해서 <원로를 만나다> 코너에 제가 감히 자리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얘기가 너무 딱딱해서 읽는 재미가 없을까 봐 걱정됩니다. 잠시 지난 날을 회고하니 MBC 재직 중 모셨던 일곱 분의 사장님들이 생각나고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재직 중 항상 곁에서 저를 격려하고 아껴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방송 기술업무에 종사하신 모든 간부 및 동료 선배 사우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BC와는 언제,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1958년 2월, KBS 大卒 公採 사원으로 선발되어 당시 오재경 장관으로부터 발령장을 받고 방송에 입문했습니다. KBS 중앙방송국 정동연 주소, 남산연주소에서 근무 중 공보실 윌리엄스(Williams) 고문관실로 차출되어 방송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1년간 수행했습니다. 이후 연희송신소 현업근무를 거쳐 공보실 방송관리국 시설과로 자리를 옮겨 KBS 전국방송망 확장 및 관리업무에 투입되어 근무 중 1961년 서울 MBC 개국을 준비하고 있던 정환옥 전무님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KBS에서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아 해를 넘기고 개국 후인 1962년 중반에 MBC로 옮겼습니다.

-고문관실에는 왜 차출되신 거죠?

당시 전쟁으로 송두리째 파괴된 한국 유일의 방송망이었던 KBS 전국 방송시설을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아 대대적인 복구작업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원활한 복구작업을 도와줄 전문가를 고문관으로 파견했는데, Mr. Williams(방송시설 전반에 걸친 관리 운영 분야) Mr. Nicolay(송신기 기술 분야) Mr. Geose(프로그램 제작분야) 등 3명의 고문관이 공보실 소속 KBS 지도요원으로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어에 능숙한 기술직 요원이 없던 때인데, 마침 제가 학창시절(서울대 공대) 미국 유학 준비를 위해 공부했던 부족한 영어였지만, 그에게는 아주 절실한 요원으로 받아 들여져 그와 짝이 되어 1년간 그의 사무실로 내 자리를 옮겨 미국의 새로운 방송시설 관리, 운영기법을 전수 받으면서 그를 도와 KBS 방송시설 재건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공보실 방송관리국 시설과에서 KBS 전국방송망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근무 경험이 훗날 MBC에서의 나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창사 초기 인사동의 방송시설이나 기술장비 상황은 어땠나요?

내 눈에 비친 MBC 개국 초기 방송시설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이런 방송 시설로 과연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KBS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의 막대한 경제원조로 최신 시설을 갖추고 규모도 엄청나게 컸는데, 거기에 비해 MBC 인사동의 방송시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민망스러움 그 자체였고, 한마디로 그 시절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수준을 대변하는 실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지태 사장님과 정환옥 전무님 외 임직원들은 참으로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민간 상업방송이라도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방송 사업을 하겠고 감히 생각했는지...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MBC 기술부문의 실정은 어땠나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지태 사장님은 부산 문화방송 개국 후 서울에 또 하나의 라디오 방송 씨앗을 파종하게 되고 개국과 더불어 여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만, 1년 만에 모종 수준의 한 그루 방송 나무가 모진 세파 속에서 그만 옛 주인을 잃고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술부문의 씨를 심고 물을 준 주체는 정환옥 선배님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올라온 최삼수, 황규봉, 최봉구, 김양광, 황윤환, 백운춘 등이었고, 그밖에 서울에서 합류한 김교성, 천광남, 연운권, KBS에서 스카우트 된 안흥식, 최인열, 이현철, 이영일, 고흥복, 임정봉 등으로 구성된 기술팀으로 방송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 김지태-정환옥 라인이 물러나고 고원증-전용인 라인으로 정리되어 '새로운 인사동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합류한 멤버가 김병문, 김필상, 노서울, 윤영철, 윤각노 등이었고, 이 시기에 인사동 공채 1기생을 모집해 교육, 훈련과 동시에 현업에 투입,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동 시대를 개척하고 성장 시키는데 정환옥, 전용인 두 분 선배님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두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정환옥 선배님은 기술부문만 관장하신 게 아니고 김지태 사장님을 대리하여 서울MBC 개국 준비는 물론, 방송 개시 후에도 서울MBC의 관리,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사실상 회사의 2인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나 개국 후 김지태 사장님이 떠남에 따라 동반 퇴진하게 되었고 '라디오 서울'로 가셨다가 훗날 서울 남산타워 건

설을 주도하시고 타워운영회사 사장도 하셨습니다.

전용인 선배님은 5.16 당시 육군통신차감이었는데 고원증 사장님을 모시고 MBC로 오신 후 당시 거의 마비된 인사동 서울 MBC의 회생을 위해 초기에는 방송 전반에 걸쳐 위기 수습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분야별 전문 인력을 외부(주로 KBS)로부터 영입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방송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른바 '인사동 파동'을 수습한 후 새로 취임한 황용주, 조증출 사장님 재임 중에도 방송 기술을 관장하면서 네트워크 확장 업무를 계속, 전국 라디오 방송망을 완성하고 재단 사무국에서 TV방송망 확장 사업을 주도하셨는데 나중에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셨죠.

-당시 안 선배님께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KBS에서 4년 여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이후 MBC를 새롭게 성장, 발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방송 송출 업무 경험은 물론 스튜디오 프로그램 제작 경험 등 최신 기법의 미국식 방송시설의 설치 유지,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 확장 사업에 이르기까지 MBC 발전에 안성맞춤이었죠. 고원증 사장님(혁명정부 초대 법무장관 역임)이 취임한 직후 많은 사원들이 흔들렸는데, 저 자신도 정환옥 전무님의 퇴진에 동조하려 했어요. 그런데 고원증 사장님께서 "혁명 정부는 당신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세요"라며 간곡하게 만류하는 바람에 결국 모든 고난의 멍에를 짊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전용인 선배님의 지휘 하에 실무를 담당하면서 전열을 새로이 가다듬고 신규 인력을 확보해(신입공채 1기, 2기생 포함) 교육훈련을 한 뒤 현장에 투입하고 네트워크 확장사업에 착수, 부산 서울에 이어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순으로 제1차 라디오 방송망 확장에 돌입했습니다.

-인사동시대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던데 기술부문도 마찬가지였겠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방송은 계속하지만 막대한 부채 때문에 월급도 제 날짜에 받지 못할 때가 가끔 있었고 보너스는 받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사동 시절이었지만 고원증 사장에 이어 황용주 사장, 조증출 사장으로 이어지면서 라디오 네트워크 확장 사업은 2차, 3차로 이어져서 전국에 21개 네트워크를 완성했고, 동시에 TV 방송 개국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여 결국 인사동 시대를 마감하고 정동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TV 방송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TV 방송 준비는 이수홍 상무님의 총지휘 하에 김교성 선배님을 모시고 실무진으로 제가 참여하여 기술부문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필수 요원의 스카우트 작업으로 KBS, TBC에서 많은 인재를 영입하였으나 그 부작용도 커서 개국 후에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 무렵에 정동시대를 꽃피울 TV1기 요원들을 대거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라디오와 TV 연주소의 설계에 애를 먹으셨나요?

정동 사옥과 그 후 여의도 사옥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 유수의 설계회사에 일을 맡겼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방송국 연주소 설계 경험을 가진 회사가 없었어요. 정동연주소 설계는 (썬공간에서 맡았는데 소속 설계기사들이 일반 건물 설계 경험 밖에 없었고 TV, 라디오 방송의 메커니즘이나 기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아예 손도 못 대고 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우선 방송 프로그가 어떻게 제작되고, 어떻게 방송되는지 교육을 시켜 겨우 방송 기능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한 뒤 외국의 방송 자료와 NHK 등 외국 방송 견학을 통한 자료 수집과 함께 이들의 설계 작업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기본 설계 개념조차 파악이 안 되어있으니 애당초 설계는 불가능해 보였죠. 결국 구조 계산이나 외형 및 내장 부분은 그들이 했지만 방송 기능적인 음향 설계, 조명 설계, 평면 배치, 방송장비 하중 계산, 동선 확보 개념 등은 모두 내가 직접 설계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해진 개국일정에 맞추기도 힘들었습니다.

TV 연주소 설계 자체도 힘든 일이었지만 방송설비의 선택과 그 장비를 수용할 건물, 운영에 임할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구체적 구상과 실천 세부사항 등 일정표를 미리 만들어 시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을 수행하는 심정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 서울 TV를 개국했고 얼마 뒤에 부산TV도 같은 수순을 거쳐 개국해 대구, 광주, 제주에 이어 대전, 전주까지 7곳에 MBC TV국 설치를 마무리하고 일단 MBC-TV 네트워크 확장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MBC 방송의 발전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의견이신가요?

방송에서의 기술 기여도가 점점 커지면서 기술도 날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한 MBC가 몇 년 후에는 흑백 TV 방송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인력을 확보해 교육훈련을 시켜 방송을 개시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컬러TV 방송을 하게 되고 아울러 FM 전용 방송과 표준FM방송(AM보다 양질의 방송)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장하는 등 연쇄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MBC는 그 존재감을 과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고, 지상파 방송을 운영하는 한편 추가로

IPTV, IPR, DMB 등 다양한 형태의 방송망을 이용해서 시·청취자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즉 방송의 기술적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도 막대한 발전과 변화, 즉 진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방송 콘텐츠 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되었고, 드디어 문화상품, 한류상품이란 이름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MBC 기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크시죠?

물론입니다. 사실 콘텐츠 제작에 동원되는 각종 시설과 기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마술과도 같은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전문분야 종사자만이 이해하고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우리 MBC 사우회원님들조차도 전문기술분야 이외에서 일하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술 세계를 이루고 운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상암동 MBC 방송센터의 기술 수준은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작품입니다. 막대한 양의 각종 자료와 콘텐츠를 제작해서 저장, 배출하는 중앙저장배출센터의 기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변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동료 사원의 노력과 많은 시간과 돈이 이루어 놓은 산물입니다. 사우회원님들! 보람과 긍지를 가지세요. MBC는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현장 실무를 떠나 관리자로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인사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1969년 8월 8일 TV 개국과 함께 정동시대가 열렸습니다. TV 방송 업무에 전념하던 중 1971년 3월 라디오-TV 총괄 기술국장으로 발령받고 서울 MBC를 비롯한 전국의 MBC 계열사 기술지원 업무를 관장했어요.



〈인사동 1기생들과〉

그 후 1979년 2월 정기주총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기술이사, 방송이사로 4년간 근무하고 이어서 부산문화방송 사장으로 3년간 근무한 후 1986년 2월 MBC를 떠나 체신부 산하 한국통신공사 방송망사업본부 운영실장으로 가서 한국 방송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1988년 MBC 본사로 복귀 후 연구소 소속으로 후진 양성과 기술사문역으로 있다가 1990년경 회사를 떠났고 그 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인천국제공항건설 업무에 참여한 뒤 캐나다로 와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신지요?

두 분 사장님인데요, 먼저 이환의 사장님은 방송사상 TV 뉴스프로의 혁명을 가져온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시스템의 국내 최초 도입을 결단하시으로써 한국 내 TV 뉴스 취재 능력의 기선을 제압하게 하신 분입니다.

보도 기능 중 동영상의 뉴스 취재는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 시절 방송 시스템에서는 Bolex, Filmo, Arriflex 등 16mm 무비 카메라로 필름 촬영하여, 스튜디오에서 현상해 편집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겨우 송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 보도의 필수 요건인 신속성을 만족시키기 어려웠고, 시설도 방대하고 소모품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동원되었죠. 이것을 혁명적으로 개혁한 것이 바로 ENG 시스템이었죠. 저는 이미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他社에 앞서 암암리에 ENG 도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런 기막힌 기능의 도입을 당시 보도국 카메라 기자들이 결사반대 하는 겁니다.(자기네 고유 영역의 일거리를 엔지니어들이 침범한다는 기우 때문에)

다행히 이환희 사장님의 결단으로 무난하게 도입, 운영함으로써 他社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또한 컬러TV 방송 준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술·제작·보도·편성 등 각 분야 요원을 일본에 보내 연수를 시켜 준비해 뒀다가 훗날 컬러TV 방송에 적시 안타를 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 여의도 시대를 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추진 중에 자리를 뜨셨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내실을 기하고 오늘의 MBC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 놓으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요?

이진희 사장님인데, 당시 KBS가 "MBC는 컬러 방송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 KBS만 컬러 방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지의 정보를 문공부, 체신부에 제공함으로써 MBC의 컬러 방송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이때 이진희 사장님께서 저에게 '컬러 방송 가능 여부를 솔직히 말해 달라'고 해서 MBC의 준비상태(이환희 사장님 시절부터 준비해 온 내용)를 소상히 보고 드렸더니 MBC도 동시에 컬러 방송하는 것으로 결심하셨어요. 저에게 문공부장관께 직접 브리핑(컬러 방송을 KBS와 동시에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할 것을 지시하셔서 일정을 조율해 이광표 장관을 독대하고 구체적인 컬러 방송 실행 계획을 설명드림으로써 KBS와 동시에 방송할 수 있게 되었는데, KBS보다 더 선명한 화질로 전국

동시방송을 했다는 평가를 체신부 실무진으로부터 통보 받고 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이 기뻐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분께서 전국 MBC 계열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완전히 회수하여 서울 본사의 지배하에 둬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네트워크 운영체제를 구축했는데 이 조치는 향후 MBC 발전에 결정적 전기를 만든 것으로 MBC 역사상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71년 6월, 이환의 사장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부산, 대구, 광주, 춘천 등 19개 계열사 지분을 대기업에 팔았으며 그로 인해 경영은 정상화 됐으나 19개 계열사는 이름만 MBC였지 대기업 소유였는데 이진희 사장 취임 후 1980년에 19개 계열사 지분을 다시 사들여 MBC는 9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다-편집자注) '100% TV 전국 네트워크와 100% FM 전국 네트워크 완성'이란 큰 선물을 남기시고 문공부 장관으로 영전하신 후에도 계속 진행 중이던 확장 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므로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공개할까요. 1985년 전두환 정부에서 느닷없이 전국 방송의 송신시설 및 운영 요원의 국유화를 결정하고 KBS와 MBC 송신소의 모든 시설과 운영요원 약 1000여 명을 체신부 산하 한국통신공사로 흡수 이관시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유지 및 인력운영상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 12월, 부산문화방송을 퇴직한 후에 한국통신공사 방송망사업본부 운영실장으로 제가 선임되어 가보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대다수 운영요원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실효 없는 과잉대응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임을 파악하고, 즉시 체신부, 문공부의 실무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받아 노태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환원 조치함으로써 한국방송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오 명 체신부장관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으로 원만히 해결돼 모든 시설

과 운영요원 1000여 명이 각자 소속 방송사로 복귀함으로써 사건은 3년 만에 해결을 보고 마무리 되었었죠.

-MBC 퇴직 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에도 참여하셨죠?

제 생애에서 또 하나의 보람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1995년쯤 정부에서 신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착수할 무렵인데, 국제컨소시엄 건설회사 K.A.C.I에서 설계업무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신공항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 별 최신 정보통신 시설(미국 A.N.S.I. 기준에 적응하는)의 도입을 위한 설계업무를 직접 관장하게 되었고, ㈜삼성전자, ㈜현대정보통신, ㈜데이콤 등 3社 정예 기술진 100여 명을 이끌고 3년 간에 걸쳐 설계업무를 완성함으로써 오늘의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죠. 신공항 건설사업의 한 부분에 내가 직접 참여했다는 긍지와 보람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 뽑으신 유능한 기술 인력들이 많았죠?

MBC로 와서 얼마 있다가 사장이 바뀌고, 새로운 사장 취임과 더불어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텅 비어 방송할 사람이 없었어요. 당장 방송도 내야 되고, 네트워크 확장 사업도 해야 하고, 인력도 양성해야 하고,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1963년부터 3년에 걸쳐 서울, 부산 라디오 방송국에 이어 대구·광주·대전·전주 등 4개 라디오 방송망을 새로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전용인 라인으로 개편된 기술 멤버(김교성, 김필상, 김병문, 윤영철, 노서을)를 합류시켜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인사동 초기, 서울은 물론 지방MBC 확장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확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30여 명을 모집해 교육 훈련을 거쳐 현장에 배치했는데 일부 부족한 인력은 추가로 외부에서 스카우트하여 보충했습니다. TV 개국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했는데 필수요원은 기존 KBS, TBC에서 스카우트하고 나머지는 공채로 채용해 교육, 훈련 과정을 거쳐 현장 배치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신교육을 받은 많은 인재들이 응모했고, 이중 성적이 좋은 60여명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육 훈련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고 결국 정동 TV 시대를 거쳐 여의도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부상해 오늘의 MBC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밖에, 1982년 '방송의 날', 방송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

고 나를 아끼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후기>

안홍식 선배님께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관계로 인터뷰는 이메일로 이뤄졌습니다. 80 고령에도 기억력에 흐트러짐이 없으셨고 인터뷰 요청을 정말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다만, 1984년 망원동 수재(水災)로 사진이 모두 유실되어 재직중 사진이 없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영원한 MBC맨' 안홍식 선배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행복한 노년을 사시길 바랍니다.

대담.정리: 편집장

HD FIELD BOX LENS

XA99x8.4BESM
TELEPHOTO HD LENS

XA77x9.5BESM
TELEPHOTO HD LENS

ZK2.5x14
14-35mm, T2.9

ZK3.5x85
85-300mm, T2.9

ZK4.7x19
19-90mm, T2.9

4K

35mm PL MOUNT LENS

백두인터내셔널(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1
TEL : 02)575-6433, www.fujinon.co.kr